

# 양계 이상향 집단농장 건설한다

천안양계협동조합은 효과적인 계분처리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존 양계장을 헐고 주위와 격리된 새로운 지역에서 집단농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집단농장은 영세한 중소규모 양계업자가 지향해야 할 이상적인 형태로 꼽히고 있으나 몇가지 법적인 문제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중소규모 양계인의 사활이 걸린 집단농장 건설을 법적인 시각에서 규제되기 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에서의 이해와 협조가 요구된다.

**양**계업계도 축산물 수입자유화로 크든 작든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길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생산비를 낮추는 방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내적인 문제로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계분처리가 양계업계에 가장 큰 현안문제로 등장했다. “나도 먹고 살기 위해 닭을 키워야 한다”고 하소연하면 동네사람들이 묵묵히 참아주었던 양계업자에게 좋은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는 뉘새나고 파리날린다고 동네사람들의 원성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동네사람들에 의해 떠밀려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이다.

## 새로운 형태의 집단농장 구상

천안양계조합(조합장 김경렬)은 이런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지난 88년 11월 25일 54명의 발기인으로 출범한 조합은 89년 7월부터 계란 구내와 판매사업을 시작하면서 조합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조합 활동이 활성화되고 인근 양계농가에 조합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 천안, 천원, 아산, 온양, 연기 등 5개 시·군지역에서 54명의 조합원으로 시작된 조합이 이제는 중원, 공주, 홍성, 청양 등지에서도 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이 1년사이에 2배에 가까운 100명으로 증가하였다.

현재 1일 20만개의 계란 공판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월 2,500t의

사료와 난좌 등 기자재를 공동으로 구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계분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전혀 갖추지 못해 양계장에서 생산된 계분을 건조나 발효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근 과수원 등에 공급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이것마저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 양계장에 계분이 쌓이게 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로부터의 항의로 인하여 난처한 입장에 처해 있다.

조합원들의 사육규모가 1만수 내외로 영체함과 낙후된 시설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지금까지 양계업을 해오던 방법으로는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아래 새로운 형태의 양계업을 구상하고 있다.

아직 전혀 시도되지 않은 집단

농장 30여명의 조합원들이 한지역에 모여 집단으로 양계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 생산비 20% 절감가능

김경렬 조합장은 각각 분산되어 있는 양계장을 집단화 단지로 이주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을

1. 계분의 건조 발효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여 공해방지의 실현
2. 공동방역과 철저한 집단예방으로 질병방지
3. 최신시설을 갖추고, 집단화로 투자비와 인건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으로 생산비 20% 절감
4. 계란의 가공 및 단거리 운반으로 출하조절을 위한 장기보관 기능을 갖추.
5. 종란생산 및 자체부화로 건장추 입식과 계획생산 가능
6. 공동육추로 육추사, 기구 이용율을 향상시켜 생산비 절감, 70일령 중추 1,300원에 생산
7. 기존 불량축사를 철거하고 완벽한 설계와 정리정돈된 단지를 갖추어 환경을 개선
8. 경작이 불가능한 토지와 유휴지를 이용하여 국토이용의 효율화를 꾀한다.
9. 단지내 생산능력을 파악하여 계획생산과 장기저장이 가능함으로써 수급조절 가능
10. 일반주민과 격리되어 집단화함으로써 주민과의 마찰과 원성을 해소한다.

## 66

### 집단농장은 30여명의 조합원이 한 지역에 모여 2만수 규모로 개별경영을 하며 협업형태로 발전시킴 예정이다

## 99

즉 기존 양계장을 철거하고 양계만을 위한 이상적인 낙원이라할 수 있는 집단농장으로 이주한다는 것이다. 집단농장은 1인당 2만수 정도의 규모로 분할하고 계분처리 시설, 계란저장창고, 선별기, 차량, 포크레인, 페로이다, 사무실 등을 공동으로 갖추어 운영할 계획이다.

즉 양계만을 위한 낙원, poultry pia 실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계란생산비는 지금보다 20% 정도 절감될 수 있고 당면과제인 계분, 인력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으리라 분석하고 있다.

### 집단농장 건설에 제약요인발생

그러나 천안양계협동조합은 몇 가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첫째 엄청난 자금이 소요되고, 둘째 집단농장 인·허가 문제, 셋째 자금이 부족한 조합원이 탈락된다는 점이다.

집단농장은 농장부지 구입비 및

계분처리시설, GP 시설, 계란저장창고 등 공동비용이 20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각 조합원의 계사건축, 케이지, 스크래퍼, 급이시설 등 자동화시설에 소요될 자금과 성계구입 등이 1억원에 달해 총 5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현재의 양계장을 처분하여 1인당 5천만~1억원씩 총당할 수 있어 자체 자금이 20억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셈. 여기에 충청북도에서 양계장 집단화 자금 6억원이 90년도 사업계획에 올라 있고, 집하장 설치자금 3억6천만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 따라서 계사시설개선자금, 공해방지시설자금, 금융기관 융자 등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자금문제가 집단농장을 건설하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에 7만8천여명의 집단농장 적격지를 물색해 놓고 부지구입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몇가지 법적 제약과 행정 당국의 기피 때문이다.

### 공동계분처리로 공해문제 해결

당국은 물색해 놓은 부지로부터 1km 정도 떨어진 주민들의 동의서를 요구하며 집단농장 이주를 기피하고 있다. 인근에 양계단지가 이주해오면 공해문제를 먼저 걱정하게 될 주민들의 민원을 이

해할 수 있지만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상에서 시작된 집단농장이 공해 걱정으로 지역에서 배제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듯. 계분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계분공해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집단농장이 건설되면 오히려 인근지역에 계분을 이용한 새로운 농업이 발달되리라 예상되는 장점을 지녔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또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조항, 농지전용, 건축허가 등 몇가지 법적인 배려가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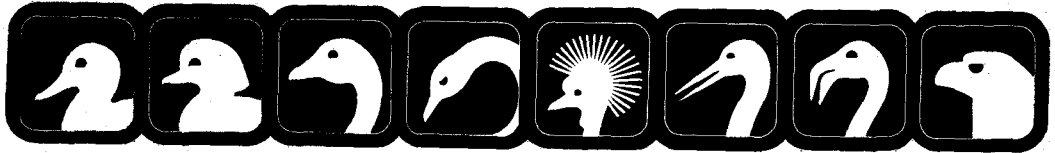
야 한다.

결국 조합원에게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양계업을 계속하기 위한 방편이며, 수입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생업을 영위하겠다는 가장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된 집단농장이다.

소규모 양계인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할 단계라 생각한다. 따라서 양계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양계업 경영에 장애요인인 계분과 인력문제를 해결해 주는 집단농장 건설에 긍정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

100명에 달하는 천안양계협동조합원 중 집단농장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원은 30명 정도로 양계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와 자금여력을 지닌 사람들이다. 그러나 나머지 자금력이 부족한 조합원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집단농장 참여를 결정한 조합원이 집단농장을 건설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양계업계, 정부, 유관종사자들의 의무이자 목표일 수 있다. 여기에 자금력이 부족한 모든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면 금삼첨화가 아닐까 생각한다. [23]

알을 낳는 우리



들에게 메치리신은

보약입니다. 알이 굵어집니다.

대란을 특란으로

**메치리신**



주식회사 과학축산

서울사무소 : 용산구 한강로 2가 316-1  
대표전화 : 795-2361 (~5)